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(2005년 11월 1일 화 ~ 4일 금)

· 주최 : KIN(Korea International Network)

· 주관: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(10개단체)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, 동북아평화센타, 동북아평화연대,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,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단, 중국동포의집·외국인노동자의집, 중국동포타운신문, 해외교포문제연구소, 한국청년연합회(KYC), KIN(지구촌동포청년연대)

· 후원 : 재외동포재단,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, 코리아포커스

- 1.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,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.
- 2. 본 자료는 http://www.kdemocracy.or.kr/KDFOMS/에서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민 주 화 운 동

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

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.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.

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.

> 서울시 중구 정동 34-5 배재정동빌딩 1-3층 전화 02-3709-7500 팩스 02-3709-7530 http://www.kdemocracy.or.kr/

축사

함세웅 |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

지난 세월 우리 한민족은 외세의 침략과 강점, 이념에 의한 분열과 가난으로 인해 수많은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. 특히 지구촌 곳곳으로 흩어진 재외동포의 외로운 삶은 상상을 초월 한 고통이었습니다. 그러나 불굴의 의지로 일어선 우리 동포들은 굳건한 연대를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내고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. 이러한 노력은 700만 재외동포의 이민역사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.

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동안 수많은 민족·민주열사, 동지들의 피와 땀을 통해 제3세계의 모범으로 이야기될 만큼 발전하여 왔습니다. 그러나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, 실업자증가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,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 등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. 뿐만 아니라 힘의 논리에 따라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우리가 이뤄놓은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결실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.

시대는 아직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노력과 투쟁,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민주화투쟁의역사가 오늘을 있게 하였듯이, 현재의 노력이 미래의 한국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그 서슬 퍼런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내던지며 투쟁했던 그 정신을 되살려 이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. 한반도에서의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의 정착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소망이며 반드시우리 손으로 이루어내야 할 소명입니다. 또한, 우리는 조국의 독립, 민주주의 실현과 평화정착을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몸으로 지원해 주신 재외동포 여러분의 눈물겨운 노력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.

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영하며, 이같은 노력이 큰 결실을 맺어 여러분의 소중한 뜻에 국민 모두의 뜨거운 보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우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또한 앞으로 재외동포의 염원에 부응하는 자랑스러운 민주사회를 이룩하여 인류 사회의 민주·인권·평화실현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